

언약의 관점으로 본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에 대한 이해 및 기독교상담적 함의

오혜진* 김명신** 장동진***

국문초록

개인의 가치관이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부부관계의 헌신이 그 영적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 헌신을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독교상담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상호헌신의 영원한 약속임을 설명하고, 언약의 속성으로 의지와 결단, 실천,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임을 밝힌다. 이 언약의 전제와 속성은 결혼과 유사하며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신의 모습을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과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기독교상담에서는 개인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개인의 개별성과 연합성을 키워 하나님과 그리고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 나아가 부부와 하나님의 안정적인 삼각관계 형성하는 것, 사랑의 기술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 관계를 위해 용서의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관점에서의 부부관계에 대한 헌신을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연구, 특히 상호적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언약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부부관계 외 다양한 가족관계에 언약적 헌신을 적용할 때의 한계점을 논의한다.

주제어: 언약, 언약으로서 결혼, 부부관계, 헌신, 기독교상담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전공 박사수료, 제1저자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전공 박사과정, 참여저자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I. 여는 글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로 성경의 제일 처음인 창세기 1장에 등장한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창 1:27-28). 2장에서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이끌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창 2:18-25). 이렇게 시작된 결혼 제도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결혼의 목적과 내용, 가치는 시대마다 달라졌다. 성경에 나타난 결혼의 모습도 시대마다 변화하였다(조명기, 2008). 모세오경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결혼이 다루어졌고 번성이 주목적이었다.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에 근거한 철저한 연합을 결혼의 목표로 삼았다. 복음서에는 여전히 모세의 법대로 남성이 이혼을 요청하는 모습도 있고, 반대로 로마의 법대로 여자가 이혼을 요청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그럼에도 결혼은 여전히 하나님이 의도한 관계와 제도라는 것이 분명하며 부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로 하나님과 연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결혼관을 보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결혼은 조금씩 주류에서 밀려났고, 점차 결혼에서 얻는 만족과 행동의 정도가 결혼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김규식, 2011).

20세기 이후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경험이 가치 있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혼에도 적용되고 있다. 생존, 종족 보전, 경제적 필요성 등에 의해 결혼을 했던 과거와 다르게, 현대는 결혼과 출산이 필수적이기보다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홍수아, 손서희, 최자혜, 2023). 또한 사람들이 결혼을 유지하는 이유도 아주 다양한데 사랑이나 친밀함의 정도, 정, 자식, 경제적 이유, 자녀 양육 등이 있다. 이렇듯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선택은 개인의 가치관과 환경요인, 자원 등의 영향을 받는다(홍수아, 손서희, 최자혜, 2023).

중요시되는 개인적 가치관 중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의 정의와 그 모양은 매우 다양하며, 주관적인 시선들이 많다. 부부관계의 사랑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는 사랑이 친밀감, 열정, 결정/헌신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낭만적 사랑은 연대감을 주고,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기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낭만적 사랑이 결혼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으며, 성숙한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이 모두 있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또한, 김선희와 오오현(2021)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사랑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관심과 열정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

나라 서로 헌신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심하고 이행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사랑에는 감정적 사랑, 우정, 친밀함, 헌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혼 안에도 낭만적 사랑을 포함하여 관계 유지를 위한 결심, 헌신 행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헌신은 관계 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황성실(2013)은 부부가 서로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헌신하면, 이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하며, 결국 이를 통해 결혼만족도를 높이게 된다고 하였다. 나남숙과 이인수(2017) 또한 배우자를 우선시하는 헌신 행동을 할 때 부부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이혼 예방을 위한 결혼 전 준비교육을 연구한 공정환(2019)도 부부가 애정과 만족감을 느끼는 시점이 서로 헌신하는 순간이라고 하며, 이런 헌신이 관계 지속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헌신의 사전적 정의(네이버 국어사전)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으로 흔히 공헌, 봉사, 이바지가 유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헌신을 무조건적인 희생으로만 생각하는 등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거 국내연구에서 헌신의 의미가 실제로 수고나 희생과 같은 행동적인 관점으로 한정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조성봉, 2017).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배우자를 배려하는 관계몰입의 내적 동기보다 절대적인 희생의 행동만이 부각된 것(나남숙, 이인수, 2017)과 더불어 한국 전통적인 유교 중심의 가족문화, 현대의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물든 결혼의 모습(조명기, 2008) 등은 헌신의 의미를 왜곡시켰다. 이렇듯 헌신은 관계에서 자신의 의지나 만족보다는 상대를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국외연구에서 헌신(commitment)은 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 또는 의도를 의미한다(Johnson, 1991; Rusbult, 1980). 또한, 개인이 어떤 관계에 관심과 마음을 쏟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미래에 대해 약속, 맹세, 다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도 정의하고 있다(Cambridge English Dictionary, 2017).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을 부부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고 있다(황성실, 김영희, 2013). 그리고 지속하고자 하는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헌신 행동이 결혼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황성실, 김영희, 2013). 이렇듯 헌신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기초 요소이기 때문에(Crabb, 2013) 우리는 헌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결혼에 관해 설명하는 성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상담자이며 저술가인 Chapman(2006)은 그의 책에서 교인, 목회자, 선교사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그에 따른 걱정을 보인다. 기독교인의 이혼은 결혼 실패에 대한 상처를 주는 것 외에도 복음 전파나 선교와 같은 활동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인한(2005)은 기독교인들의 이혼 배경으로 교회 내 보편화된 계약적 사고방식을 지적하는데, 이는 결혼이 가진 사적인 계약의 성격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중세까지 결혼은 사적 계약이자 공적이며 영적인 계약이었으나 종교개혁을 거치며 더이상 성례가 아니라 사적인 계약이며 교회의 영역을 벗어났다(윤형철, 2017). 그 이후 칼빈의 제네바 혼인 계약으로 언약 신학적 결혼 신학을 주장하며 공적 성격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가치를 제고하려 했으나 결혼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정부에 있었다. John Witte Jr.는 결혼을 당사자 간의 쌍방적 합의와 흥정을 할 수 있는 인간적 영역으로 환원시켰다(박은주,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흐름 가운데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정서적 친밀감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물들고 결혼이 가진 영적인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언약의 관점에서 결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비적으로 보여주는 관계이다. 호세아(2:19-20)와 요한계시록(21:2)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예루살렘뿐이며, 결혼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의식이며 과징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에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언약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는 삶, 관계의 친밀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많은 서적들에서 결혼과 가정을 위한 기본적인 성경적 원리로 언약을 말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윤리와 교육학 분야에서 언약으로서의 결혼과 헌신에 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언약으로서의 결혼과 헌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인한(2005)은 계약과 언약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여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결혼의 모범과 원리를 도출하였다. 유재성(2017) 또한 성경적 언약개념과 결혼 관계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 언약 관계가 결혼 및 가족관계에 구현될 때 행복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제시하며, 부부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언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실제적인 삶에 적용되어야 하고, 나타나

야 한다. 특히 언약을 토대로 헌신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다양한 갈등을 호소하며 상담실을 내방하는 부부에게 결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용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기독교 상담학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언약으로서 결혼과 헌신에 대해 고찰한 후 기독교상담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헌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을 언약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부부관계, 지속적인 결혼 관계를 위한 기독교 상담의 구체적 개입 방법 등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언약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창 1:26)”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을 반영하고 대표한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 스스로를 복수, 즉 관계적 존재로 계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관계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창 2:18). 개혁주의 언약신학자 중 하나인 Horton(2015)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인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무조건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백성들도 그러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covenant)이다.

Webster’s Dictionary에서는 언약의 뜻을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뭔가를 행하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것은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합의”로 정의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언약을 ‘말로 약속함, 또는 말로 한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는 듣기 힘든 이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만 300번 이상 사용되고 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뜻하는 베리트의 유래는 다양하다. 성경에서 사용된 언약의 의미를 볼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상호 간에 충성과 진실함의 의무가 주어

지는 상호 헌신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성민, 2021). Lowery(2003)는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규정한 것이자 그 관계에 수반되는 복을 보증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강인한(Robertson, 2005에서 재인용)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적 관계의 핵심을 결코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언약적 헌신을 표현하였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노아와 언약을 맺고(창세기 6장) 그 이후 아브라함, 모세 등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신다. 그 언약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은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언약인 모세의 시내 산 언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십계명(출 20:2-17)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출 19:5-6) 말씀하신다.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용서를 받는데 그 이유를 은혜 언약에서 찾을 수 있다. Horton(2015)은 조건이 아닌 은혜의 약속으로 구원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은혜 언약을 설명한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 하나님은 그에게 민족의 조상이 될 것과 그의 후손이 복을 얻을 것을 계속 약속하신다. 인간의 주체성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기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면 누구나 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 맺는 시내 산 언약(창 19장)을 보면 무조건적이기보다 상호조건적인 약속으로 보인다. 김성민(2022)은 시내 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약속이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의무를 못 하더라도 계속 언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언약이라고 하였다. 그 조건은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서약하는 것과 선포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언약에 대해 Herman Bavinck(2011)는 복음 전체를 은혜언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은혜가 인류에게 전달되는 형식이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께 속해있음을 알게 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Horton, 2015).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맹세 위에 약속된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맹세는 구원의 약속이다.

언약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영원한 약속이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고 그 전제 위에 몇 가지 언약의 속성이 세워진다. 언약의 속성 중 첫 번째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언약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혼자 의무를 지면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 순종과 헌신, 책임의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장동진(2022)은 서로에게 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발적으로 의무를 지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언약을 맺은 자들은 실패하고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아브람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소유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으며(창 12:1-9) 모세가 낭독하는 언약서를 들은 백성들은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다(출 24:3-8). 아브람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이 순종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 언약의 속성은 실천이다. 바빙크는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원리를 제공하며 실제 삶의 변화와 성장을 촉구하는 가르침이라고 보았다(김규보, 2019).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를 이루신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말을 따르라 하신다(출 20:3-17).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행해야 한다. 성경에서 믿음은 행함에서 나온다는 구절이 있다(약 2:14-26). 언약은 결단 이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 속성은 용서이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아담부터 죄를 저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하신다. 노아시대 사람들의 악함과 타락함에도 노아를 구하셨으며(창 6:5-8) 아브람은 다른 여인에게 아들을 얻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셨다(창 21:1-7). 이후로도 인간의 죄지음과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기에 언약에서 용서는 중요한 속성이다.

마지막으로 언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다. Lowery(2003)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여 그 분과 언약관계를 맺을 때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다고 말한다. 땅에서 시작된 인간의 일생이 천국 보좌 옆에 갈 때까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언약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언약이 가진 두 가지의 전제와 4가지의 속성은 언약으로서의 결혼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2. 언약으로서의 결혼

결혼은 일반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에 걸쳐 서로 사랑하며 부부로서 살아

갈 것을 약속하고,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이며(창 2:23-25) 결혼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다르다(잠 2:17; 말 2:14).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 언약과 연결시키고 있다(Lowery, 2003). John Piper(2013)는 결혼을 헌신을 토대로 하는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며,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Balswick과 Balswick(1996)은 언약과 같은 서약으로 가족관계가 시작되며,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를 통해 안전감을 느끼고, 은혜를 통해 서로를 돕고 성장시키며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결혼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종교개혁을 통해 확립된 결혼신학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혁한 언약으로서의 결혼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루터와 칼빈, 블링거가 주장했던 '언약으로서의 결혼'을 살펴보고자 한다.

John Witte Jr.(박은주, 2017에서 재인용)는 20세기 이후의 계몽주의 결혼신학을 '계약으로서의 결혼', 그 이전 로마 카톨릭 전통을 '성례로서의 결혼', 종교 개혁자 칼빈주의 전통을 '언약으로서의 결혼'으로 분류하였다. 전통적인 성례로서의 결혼은 신성하고 영속적인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세교회에서 혼인예식 전체를 담당하면서 교회가 권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권력계층을 위해 과정을 간소화시켜 주는 등 부패한 전통이 만들어졌다(서혜란, 2018). 이 폐단으로 인해 종교개혁과 계몽주의가 시작되었고 결혼 역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두 왕국론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교회와 관련된 사항이더라도 육체에 속한 일은 세속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에 따라 결혼이 사적인 계약임을 강조하고 교회법에서 분리했다(윤형철, 2017). 그러나 이것이 결혼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루터는 결혼이 성례임을 부인하였지만,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한 질서이며 결혼 이후 실제적 삶의 의무를 신앙인의 일로써 인식하기를 바랐다(Selderhuis, 2016).

칼빈 역시 초기에는 루터의 주장에 동의하여 결혼을 교회법에서 세속적인 계약으로 끌어내리며 교회 밖의 행정과 법률에 맡겼으나, 칼빈의 종교개혁 후반기에 그는 결혼의 공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회복시키고자 하였고 그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언약 사상에서 찾았다(윤형철, 2017). 언약 사상에 근거한 칼빈의 혼인 신학은 혼인이 하나님에 주재하는 신적 제도이기에 사적 계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명세를 통해 영적이고 공적인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신적 제도로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결속처럼

깨어질 수 없으며 함께 창조의 목적인 구원을 이뤄간다고 보았다.

칼빈의 언약 신학적 혼인 신학은 결혼이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하여 서로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방식의 관계라고 한다(윤형철, 2017). 칼빈은 결혼에 관한 규칙들이 언약에 기반한다는 것과 동시에 결혼 당사자들의 마음에 강조점을 두었다. 다른 종교개혁 목회자들이 십계명을 들어 결혼 당사자들의 결정보다 부모의 동의를 우선시했던 것과 다르게 칼빈은 부모의 동의보다 결혼 당사자들의 상호동의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Selderhuis, 2016). 사랑을 표현하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법적 계약이 아닌 봉사 정신이 존재하는 동맹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Heinrich Bullinger는 인간이 죄인이 되어도 결혼은 신적 제도이자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Selderhuis, 2016). 그러므로 결혼 관계에서 지은 죄를 그리스도에 대해 지은 죄로 봤다. 또한 결혼의 목적을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도록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결혼에서 상호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결혼으로 이룬 가정이 공동체의 시작이 됨을 보여준다.

세 신학자들을 통해 결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서의 신성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유비, 당사자들의 사랑에 기반한 선택임과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의무, 그리고 공동체로서 확장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먼저 언약으로의 결혼은 상호헌신과 영원함이 전제되어 있다. 상호헌신은 서로를 유일한 이성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지탱해 주는 관계로 드러나야 하며 그런 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됨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처럼 언약적 관점에서 결혼이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연합임을 알 수 있다. 영원한 헌신 관계 안에서 둘은 서로에게 순종하고 기록해야 한다(윤형철, 2017).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언약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자발적으로 약속했듯이 결혼 역시 남자와 여자가 자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의무나 관념,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과정에서 부부는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부부는 서로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구원의 파트너, 동반자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했으므로 부부는 상호의존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가 되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한양호, 2007). 하나가 되기 위한 이 과정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거치셨던 수많은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성화의 과정처럼 용서와 희생,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으로서의 결혼의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

구하고 항상 그들을 사랑하며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 신부인 교회를 늘 사랑하며 그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랑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은 결혼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하듯 부부가 최고의 사랑과 관계를 경험하도록 의도하셨다. 이 약속이 영원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유는 인간 창조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복음을 받는 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길 원해서 주는 선물로 비유한다. 언약으로 보는 결혼 관계도 이와 같다. 김규보(2019)는 Bavinck의 언약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원형으로 해 실천적 원리와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을 기반으로 한 결혼관계를 볼 때 그 의미와 영적인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언약의 관점으로 본 부부관계에서의 헌신

결혼 관계의 영속성과 기초는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에 있다(유재성, 2017에서 재인용).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결혼과 가족으로 비유하여 이를 경험하도록 의도하셨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결혼과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유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약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헌신을 부부관계에서 헌신으로, 부부관계의 헌신을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헌신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송제근(2004)은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의 동기이자 목적, 내용이 언약적 자비와 언약적 진실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헌신된 행동이라고 한다면 명령을 행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고통의 위협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인간의 헌신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김규보(2015)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Bavinck의 언약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할 실천에 대해 정리하였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서로를 은혜의 존재로 여겨야 하며, 하나님 주권 아래 서로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소명을 사회로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언약적 관계에서 헌신한다는 의지는 결국 행동으로 보여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헌신은 언약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약의 관점으로 살펴본 결혼을 정리하면,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의 '관

계'를 맺는 것이며, 그 관계는 헌신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헌신은 언약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약에 바탕을 둔 결혼에서의 헌신은 하나님과 자신의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부부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Johnson(1983)은 부부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헌신의 세 가지 특성을 개인적 헌신, 도덕적 헌신, 구조적 헌신으로 구분한다. 개인적 헌신은 개인이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 도덕적 헌신은 관계를 맺었으면 헌신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 구조적 헌신은 관계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신은 행복한 결혼생활 뿐 아니라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부부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공정환, 2019; 나남숙, 이인숙, 2017; 정문경, 2016; 조성봉 2017; 황성실, 2013). 이는 언약을 바탕으로 한 결혼에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게 하며, 사랑과 친밀감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상호역동적으로 더욱 결단하게 하는 선순환을 가져오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궁극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연구되는 헌신과 언약의 관점에서의 헌신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 기초, 그리고 보이는 헌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는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을 헌신의 기초와 헌신의 모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언약의 관점으로 본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의 기초를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부부관계에 헌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하기 이전에 각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사람은 평생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상황에 따라 계약으로 변질시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딤후 2:13)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고전 13:8). 이러한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요일 4:7-8). 부부관계보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어야 그 사랑

으로 언약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시고 책임져주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고 경험할 때, 서로 제한된 존재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한 사람과 영속적인 사랑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즉 헌신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언약의 헌신을 다짐할 수 있다.

둘째,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 부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혼할 때 ‘좋은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 김규식(2011)은 소명 의식과 직무를 결혼의 유지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므로 관계 유지를 위해 개인 내적인 노력을 하며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도 하다. 성경은 결혼과 가족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부터 받는 사랑이 부부관계에 안정감을 제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원한 언약 관계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언약을 모르는 부부들은 결혼관계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행동한다. 이들의 약속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 노력이 개입된다. 부부간에 하는 언약도 인간적 결단과 헌신, 노력을 포함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및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배우자와 맺은 약속을 굳세게 다져 준다. 이것이 부부의 영속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부부관계로 이끌어준다. 계약에 입각한 결혼 생활이 순조롭게 유지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헌신의 기초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헌신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헌신의 모습 또한 언약의 속성과 연결시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시작으로, 언약 관계에 기초하여 지금도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을 포함한다. Sternberg(1986)가 헌신의 속성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결정인 단기적 속성과 그 사랑을 지속시키겠다는 장기적 속성으로 나뉘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신의 모습을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과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 언약의 관점으로 본 부부관계에서 헌신은 결단이다.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이다.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물론 사랑의 감정도 필요하다. 앞서 루터, 칼빈, 불링거 모두 결혼 당사자들의 사랑과 이를 기반한 동의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규식(2011)은 현대 부부생활은 가문의 승계에 목적이 있던 과거와 달리 애정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감정과 상황이 어떠한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헌신이다. 하나님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본받아 부부관계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조명기(2008)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랍비의 대화를 들어 예수님이 모세법에 근거한 이혼 규정을 폐기시켰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 부부는 절대 갈라지지 않고 온전한 연합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결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에 따라 부부관계에서 헌신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선택을 하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오늘도 배우자를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이다.

둘째, 부부관계에서 헌신은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행해야 한다. 이수희(2018)는 마가복음 9장 35절을 근거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실천할 때 언약을 바탕으로 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크리스천의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혹은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 행복의 감정은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닮은 언약 결혼과 가정을 구현할 때 선물로 주어진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를 경험한 사람이 그 능력을 힘입어 이런 가정을 구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다. 신약 성경의 ‘아가페(agape)’라는 단어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구약 성경에는 ‘헌신적인 사랑’으로도 번역되는 히브리어 ‘헤세드(hesed)’에 대한 언급이 가득하다. 죄인인 인간을 향해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고전 13:8).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다. 언약 부부와 가족이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 배우자가 어떠한 헌신하는 것이 언약 결혼의 사랑이다. 그러나 죄인 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을 힘입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힘입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수희(2018)는 성숙한 결혼 생활을 위한 사항 중 은혜와 용서에 대해 말하며 인간의 죄와 이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듯이 부부관계도 은혜와 용서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 호세아와 고멜 부부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자격이 없는 아내를 값 주고 사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약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듯이(호 3:1-3)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관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방식은 조건충족, 징벌, 계약 파기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직면과 용서이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방식은 결혼 및 가족관계에서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을 일일이 감정적으로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들의 관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하여 분화된 접근을 하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해 배우자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붙잡아 줌으로써 아픔과 상처, 수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맥락에서 부부는 안정감을 갖고 자신을 공개하며 서로의 부족함과 약점까지도 수용하는 은혜의 언약을 체험할 수 있다.

넷째, 헌신은 자신의 원가족 및 개인 삶의 방식을 떠나 부부로 연합하여 관계적 한 몸이 되어가는 평생의 과정이다(창 2:24).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여 ‘한 몸’ 즉 ‘하나’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그 가운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아쉬우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적 존재로 창조된 아담에게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와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가정을 꾸리도록 하셨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둘이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이 되면 보다 더 온전하고 충만한 관계적 존재로 강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부부관계에서 연합은 각자가 연합되었던 다른 것에서 잘 떠나오는

것, 건강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 건강한 개인과 개인이 부부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는 부부가 주 안에서 정서적으로 잘 분화될 때 한 몸 됨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부부는 사랑에 근거한 언약을 지켜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의 힘과 노력에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처럼 부부관계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힘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주변 상황도 어려울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가 언약에 근거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마치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을 유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한다(갈 5:22-23). 부부관계에서도 성령에 힘입어 서로에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결실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열매들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랑하는 관계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독교상담적 함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그러나 결혼을 사적인 계약으로만 오해하고 헌신을 맹목적 희생으로 오해하거나 헌신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만 몰두할 때 관계가 어긋나고 깨어질 수 있다. 부부관계를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부부관계를 이루는 개인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배우자 간의 관계, 한 몸 된 부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해 볼 수 있다. 기독교상담은 넓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상담을 말하며, 기독교상담의 목표 중 하나는 관계의 회복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약의 관점으로 부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어긋나고 깨진 관계의 회복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에 합당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헌신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언약 관계의 특성과 관계 유지를 위한 적용점에 초점을 맞춰 기독교 상담학 관점에서의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독교상담에서 언약으로서의 결혼을 이해하고 부부관계를 다룰 때, 먼저 각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의 회복을 다루어야 한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

으며, 하나님, 타인,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Hoekema, 2012). 타인과의 관계 중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 육체적 연합과 영적 연합을 포함한 관계를 맺었다(이수희, 2018). 그러나 그 관계는 죄로 인해 변화되었다. 이수희(2018)는 죄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빛나간 인간의 본성이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문제를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김규보(2019)는 Bavinck와 Keller를 인용하여 “언약으로서 결혼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언약을 맺고 배우자와 수평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룩한 약속”이라고 하였다(김규보, 201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함으로 본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사이에서 흐르는 은혜가 부부관계로 흘러갈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내담자 개인과 하나님 사이 깨어진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 자기중심적인 소망과 욕구, 이상과 육신의 정욕(김준수, 2012, 이수희, 2017에서 재인용)을 내려놓고 피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정체성을 갖는 것,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 죄를 깨닫고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용납받은 나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배우자 또한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으로 헌신한다면 이는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서로에게 사랑으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가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면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헌신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도 흘러갈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로 초대하셨던 것처럼, 상대 배우자를 언약 관계로 초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부관계의 연합을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별성을 가져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모습은 부모를 떠나 결혼한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마 19:5, 창 2:24, 엡 5:31-32).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 둘의 관계이며, 이 관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다른 대상을 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이다. 즉 연합을 위해서 앞서 말한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회복이 전제된 후 한 인간으로 서야 한다. Murray Bowen은 자신의 이론에서 자기분화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정신 내적인 개념인 동시에 대인관계적 개념이기도 하며, 정서적

압력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Nichols, 2010). 분화가 덜 된 사람은 정서적 충동에 반응하기 쉽고 자율성 유지가 어려우며 잘못된 삼각관계를 만들 수 있다(Nichols, 2010). 자기분화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확대해보면 김영근(2011)은 개별성과 연합성이 균형을 이룰 때 자기분화가 된다고 하였으며, 기독교적으로 자기분화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연합하고 개별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 자유로운 상태일수록 영적 자기 분화수준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이 하나님과의 연합성을 이룬 다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연합성의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 각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온전한 자기로 설 수 있어야 하며,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각자의 원가족, 타인의 간섭, 돈이나 사적인 이익 등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관계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개인적인 차이점, 원가족과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인한 차이점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주관성 이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배우자와 연합할 때, 부부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언약공동체의 정체성이 생겨날 것이다. 이로 인해 부부와 하나님 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결혼이 부부 두 사람에게 의해 좌우되는 사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임을 알게 하고, 부부와 하나님의 안정감 있는 삼각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Bowen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인 삼각관계는 가장 작고 안정된 관계 단위로 두 사람 관계에 불안이 생길 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삼각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김영근, 2011). 원가족이나 성장배경을 이유로 개인은 잘못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자기분화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존재를 끌어들이기보다 관계 안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끝까지 서로에게 헌신하는 과정을 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 함께하신다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헌신할 힘을 더욱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부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과 동시에 그 가정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개입하실 거라는 믿음에 근거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순종한다면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고, 관계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이수희(2018)는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개인의 최악된 마음이 드러나고 내려놓으며 보다 성숙한 결혼생활을 이룰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였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알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 상담자는 정서적 중립 상태에서 부부와 접촉을 하면서 부부의 탈삼각화와 분화의 과정을 도울 수 있겠다(Nichols, 2010). 나아가 부부와 하나님이 안정적인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사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결단과 의지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rich Fromm(2015)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니라 결의, 판단, 약속이라고 말했다. 즉, 사랑은 능력이다. 배울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결혼 후 몇 년 안에 사랑의 감정은 식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기독교 상담자는 언약으로서의 결혼을 이해시키고, 사랑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능력에는 상호연대하는 법, 먼저 섬기는 법, 의사소통방법, 용서하는 법, 용납, 상한 감정을 해소하는 법 등이 있다. 여러 이론적 접근과 부부상담 기법들을 활용해서 내담자 부부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남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데(김선희, 오오현, 2010), 부부상담을 통해 남녀의 차이뿐 아니라 서로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정신화 능력을 증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 유형을 확인하고 개선 방법을 가르쳐 주며,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 시키는 것 등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

다섯째, 특히 갈등이나 신뢰를 저버린 상황에서 헌신을 유지하기 위해 용서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배우자의 잘못을 수용하는 것은 용서에 달려 있고, 용서는 배우자의 못마땅한 행동을 성경적 맥락에서 보려는 마음에 달려 있다(Crabb, 2013).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던 인류 최초의 감정인 수치와 연결되어 있다. 서로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배우자를 수용하는 것은 용서하겠다는 결단과 상한 감정의 해소가 있어야 한다. 용서를 결단하는 것은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문제로 기독교 상담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적으나, 상

답을 통해 상한 감정의 해소를 다룰 수는 있을 것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상처 입은 배우자를 상담할 때 인내를 가지고 공감과 경청, 수용을 통해서 상처 입은 배우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한숙자, 정해순, 2010).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 것처럼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닫는 글

지금은 포스트모던 시대이기에 다양한 가치관으로 개인의 개별화와 개성이 강조된다. 이런 다양함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지만 결혼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으로 예배를 통해 약속한 영적인 가치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개인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자 둘이 한 몸 된 부부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을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기독교 상담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먼저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상호헌신을 영원히 약속하는 조약이며 결혼은 이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관계이다. 그리고 이 관계의 속성에 대해 칼빈의 언약신학적 결혼신학을 가지고 논의하였고 언약과 언약의 관점에서 본 결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을 헌신의 기초와 헌신의 모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헌신의 기초는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부관계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 기초 위에 헌신은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그 사랑에 포함된 용서와 용납의 모습으로,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한 언약의 관점에서 부부관계의 헌신을 기독교 상담적으로 적용하면 첫째, 한 개인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둘째, 불안정한 부부관계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하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넷째, 각 개인의 개별성과 연합성을 키워 결혼 전에 연합되었던 것으로부터 잘 분리되고, 배우자와 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부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언약 관계와 같음을 말하고 있다. 결

혼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은혜로 맺은 언약과 같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여주시는 사랑, 헌신, 용서, 용납이 부부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언약의 관점으로 결혼을 이해하고 헌신을 말하는 목소리가 세상의 소리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교회에서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결혼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결혼의 본래 의미를 찾는다면, 성경적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본을 보이며 현실에서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비기독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헌신하는 기독교 부부의 모습이 많이 비칠수록 비기독교인 부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늘어나며 언약의 관점으로서의 헌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는 기독교상담에서 다루는 개인상담을 넘어 기독교부부상담의 목표를 둘이 하나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그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언약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목표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커플에게 헌신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게 하여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임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은 부부에게는 결혼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하여 다시 헌신할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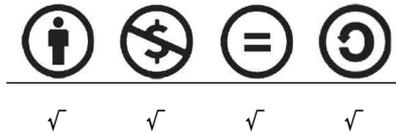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언약의 관점에서 본 헌신에 대한 개념은 하나의 부부상담이론으로 정립되기보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부상담 이론에 접목하는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개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신을 기초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이혼예방 프로그램, 결혼 전 커플을 위한 교육 등이 보편화될 수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우자 중 한 명이 비기독교인이거나 둘 다 비기독교인일 경우 이를 적용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기독교적인 개념과 세계관, 성령과 은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영원함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용서나 용납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누구나 관계적 욕구가 있고, 서로에게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김 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며 특히 자발적 선택으로 이룬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부부관계에서의 헌신이었기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부관계나 역기능적 가족관계에서 있

을 수 있는 논의점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려하지 못했다. 물론 언약의 관점에서 결혼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언약 관계는 자녀, 원가족 등에게까지 확장되어 은혜가 흐르게 된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헌신하는 행동과 관련한 구체적 실천방향이 다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4년 06월 03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07월 05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07월 11일



[참고문헌]

- 강인한 (2005). 언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9, 79-112.
- 공정환 (2019). 결혼전 준비교육을 통한 이혼예방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공정환 (2020). 이혼예방을 위한 결혼전 준비교육에서 헌신이 주는 의미. **한국기독교 교육정보**, 67, 123-163.
- 권윤아, 김득성 (2014). 부부간 핵심 문제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5(2), 847-863. <http://doi.org/10.15703/kjc.15.2.201404.847>
- 김규보 (2019). 헤르만 바빙크(H. Bavinck)의 언약 이해와 가정사역: 성경적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언약의 실천신학적 함의. **복음과 상담**, 27(1), 81-120. <http://doi.org/10.17841/jocag.2019.27.1.81>
- 김규식 (2011). 교회기반 결혼교육을 위한 핵심가치로서 루터의 결혼관. **신학과 목회**, 36, 211-234.
- 김선희, 오오현 (2021). Sternberg '사랑의 삼각이론'에 따른 기독교인 부부의 사랑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3, 381-406. <http://doi.org/10.14387/jkspth.2021.73.381>
- 김성민 (2022). 은혜 언약으로서의 시내산 언약 연구.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근 (2008). 기독교적 관계발달과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 개발. **목회와 상담**, 10, 115-145.
- 김영근 (2011).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에 근거한 신학대학원생의 가족배경 분석 및 상담. **복음과 상담**, 16, 173-202. <http://doi.org/10.17841/jocag.2011.16.173>
- 나남숙, 이인수 (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5(1), 115-136. <http://doi.org/10.21479/kaft.2017.25.1.115>
- 박은주 (2017). 결혼신학의 흐름과 교회의 적용. **신학과 실천**, 53, 33-59.
- 박정수 (2020).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족 에토스. **다문화와 평화**, 14(2), 50-73. <http://doi.org/10.22446/mnpisk.2020.14.2.003>
- 배영기 (2006). **결혼의 역사와 문화**.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 서혜란 (2018). 기독교적 가정 이해와 한국 교회의 과제. **신학과 사회**, 32(4), 183-210. <http://doi.org/10.22748/thesoc.2018.32.4.006>
- 송제근 (2004). '헌신된 사람'에 대한 언약신학적 고찰. **목회와 신학**, 185, 76-87.
-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성인의 인식. **가정과 삶의 질학회**, 22(4), 173-180.
- 유재성 (2017). 언약결혼 이해와 그 관계적 특성. **복음과 실천**, 59(1), 321-349.
- 윤형철 (2017). 칼빈의 제네바 혼인개혁: 세 가지 국면과 공공신학적 의의. **성경과 신학**, 82, 361-395.
- 이수희 (2018). '강력한 돕는 배필'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60대 여성의 결혼위기 극복 사례연구. **복음과 상담**, 26(1), 163-200. <http://doi.org/10.17841/jocag.2018.26.1.163>
- 이은규 (2008). 결혼상담을 위한 복음주의 신학적 기초. **복음과 상담**, 10, 9-33. <http://doi.org/10.17841/jocag.2008.10..9>
- 이정하, 박정윤, 윤나나 (2017).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3(2), 183-214. <http://doi.org/10.20406/kjcs.2017.05.23.2.183>
- 장동진 (2022). 기독교와 맥락 가족치료의 통합적(integrative) 이해. **햇볼트리니티저널**, 25(1), 79-109.
- 정문경 (2016). 용서, 헌신, 부정적 갈등대처양식, 결혼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가족과 문화**, 28(2), 249-278. <http://doi.org/10.21478/family.28.2.201606.008>
- 조명기 (2008). 21세기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적 결혼관: 이쉬야웨와 이사야웨를 지향하는 궁극적 존재의 회복으로서 결혼. **복음과 상담**, 10, 222-249. <http://doi.org/10.17841/jocag.2008.10.222>
- 조성봉 (2017). 관계 내 헌신(commitment)의 개념적 고찰 : 동거 및 결혼 관계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4), 735-760. <http://doi.org/10.21479/kaft.2017.25.4.735>
- 한숙자, 정혜순 (2010). 외도위기부부의 용서를 위한 기독교 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15, 221-252. <http://doi.org/10.17841/jocag.2010.15..221>
- 한영호 (2007). 성경 속에 나타난 바람직한 가정의 이해 연구. 칼빈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홍수아, 손서희, 최자혜 (2023). 20대와 30대 비혼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가능성 관련 요인. **대한가정학회**, 61(2), 183-194. <https://dx.doi.org/10.6115/her.2023.013>
- 황성실, 김영희 (2013). 부부의 헌신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45-61.
- Balswick, J. O., & Balswick, J. K. (1996). **크리스천 가정**. (황성철 역, *The family*). 서울: 두란노. (원전 1995 출판).
- Chapman, G. (2006). **연인보다 아름다운 부부로 살기 위한 부부학교** (김유태 역, *Covenant marriage*). 서울: 황금부영이. (원전 2003 출판).
- Crabb, L. J. (2013). **결혼건축가** (윤종석 역, *The marriage builder*). 서울: 두란노. (원전 1982 출판).
- Fromm, E. (2015). **사랑의 기술** (황문수 역, *The art of loving*). 서울: 문예출판사. (원전 2006 출판).
- Hoekema, A. A. (2012). **개혁주의 인간론** (이용중 역, *Created in God's image*).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994 출판).
- Horton, M. (2015). **언약신학** (백금산 역, *Introducing covenant theology*).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09 출판).
- Keller, T. (2014). **결혼을 말하다** (최종훈 역, *The Meaning of marriage*). 서울: 두란노. (원전 2013 출판).
- Keller, T., & Keller, K. (2020). **결혼에 관하여** (윤종석 역, *On marriage*). 서울: 두란노. (원전 2020 출판).
- Lowery, F. (2003).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임종원 역, *Covenant marriage*).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원전 2002 출판).
- Mason, M. (2013). **결혼의 신비** (정성복 역, *The mystery of marriage*). 서울: 두란노. (원전 2005 출판).
- Nichols, M. P. (2010). **가족치료: 개념과 방법** (김영애 외 역,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9 출판).
- Piper, J. (2021). **결혼신학** (이은이 역, *This momentary marriage*).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09 출판).
- Platte, E. (2011). **성경 속 부부에게 배우면 우리 결혼 잘될 거야** (강미경 역, *Unsere Ehe soll noch besser werden*). 서울: 토기장이. (원전 2003 출판).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2), 119-135.

Selderhuis, H. J.(헤르만 셀더하위스) (2016). 결혼의 개혁: 오늘을 위한 메시지. **갱신과 부흥**, 18(1), 1-22.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97%8C%EC%8B%A0>

[Abstract]

Understanding Commitment in Marital Relationships from a Covenant Perspective and Implications for Christian Counseling

Oh, Hyejin* Kim, Myungshin** Jang, Dongjin***

This study explores commitment within marital relationships from a covenantal viewpoint and its implications for Christian counseling. To this end, it explains that the covenant is an eternal promise of mutual commitment between God and humans, emphasizing elements like will and determination, practice, forgiveness, and union with God. The covenant are similar to marriage, so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s can be understood through marriage. The study views commitment as deciding to love one's spouse and putting it into practice. In Christian counseling, the individual first restores the covenantal relationship with God, develops individuality and unity to form a union with God and the spouse, learn and practice the skills of love, and acquire the ability to forgive in relationship. Lastly, the study suggests that research is needed on various methods and procedures that can apply commitment to marital relationships in counseling, especially on practical measures that can lead those who have fallen out of the covenant relationship back into it. The study also discusses limitations when applying covenantal commitment to various family relationships beyond marriage.

Key words: Covenant, Marriage as a Covenant, Marital relationships,
Commitment, Christian Counseling

* Torch Trinity Graduatio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 Ph.D. Candidate

** Torch Trinity Graduatio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 Doctoral Student

*** Torch Trinity Graduatio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 Assistant Professor